

우리말 어휘의 시간을 읽다

찌들다

오늘의 뜻에서 옛 문헌까지

찌들다 라는 단어의 역사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

찌들다

완성된 이름

찌들다

출처: 국립국어원 우리말어휘역사사전

찌들다

한눈에 보는 기록

뜻

물건이나 공기 따위에 때나 기름이 들러붙어 몹시 더러워지다.

요약 연대표

표기	15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미상	현재
다들다	○	-	-	-	-	-
지들다	-	○	-	-	-	-
씨들다	-	-	○	○	○	-
찌들다	-	-	-	-	-	○

history.wordrow.kr wordrow

오늘의 뜻

물건이나 공기 따위에 때나 기름이 들러붙어 몹시 더러워지다.

① 문헌의 첫 기록

15세기

📖 수록 용례

13개

📖 수록 내용

뜻 · 표기 · 문헌

사전의 뜻풀이, 옛 표기와 문헌 용례를 함께 읽는 자료입니다.
모든 뜻과 세기의 기록을 수록했습니다.
문헌 속 한자 21자의 뜻·음과 숫자 획순을 부록에 담았습니다.

☞ 우리가 알고있는 '찌들다'의 뜻

국어사전 뜻풀이

사전에 수록된 오늘날의 뜻입니다.

물건이나 공기 따위에 때나 기름이 들러붙어 몹시 더러워지다.

☞ 찌들다의 표기 연대표

표기의 변화와 공존

찌들다의 표기를 세기별로 모았습니다. 같은 세기에 여러 표기가 함께 쓰이기도 했습니다. 연대표는 모든 문헌 뜻의 기록을 모으며, 연결된 용례는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을 기준으로 읽습니다.

표기 · 근거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디들다 사전 표기 요약	●→	—	—	—	—	—
지들다 사전 표기 요약	—	—	—	●→	—	—
씨들다 사전 표기 요약시기 미상 기록도 있음	—	—	—	—	●→	●→
찌들다 사전 표기 요약	—	—	—	—	—	●→
디드- 문헌 수록 표기	●→	—	—	—	—	—
디들- 문헌 수록 표기	●→	—	—	—	—	—
지들- 문헌 수록 표기	—	—	—	●→	—	—
씨들- 문헌 수록 표기	—	—	—	—	●→	●→
씨드- 문헌 수록 표기시기 미상 기록도 있음	—	—	—	—	—	●→

표기·근거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찌들- 문헌 수록 표기	—	—	—	—	—	● →
찌드- 문헌 수록 표기	—	—	—	—	—	● →

연대표의 근거와 읽는 법

- **사전 표기 요약:** 사전의 표기 변화 요약입니다.
- **문헌 수록 표기:** 세기별 문헌에 함께 실린 표기를 더한 것입니다.
- 점이 없는 시기에 이 말이 쓰였을 수 있습니다. 표시된 세기는 자료에 기록이 남은 시기로, 낱말이 생기거나 사라진 때와는 구분됩니다.
- 점은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의 해당 세기 용례로 연결됩니다.

시대별 주요 표기 모아보기 4종

사전의 표기 요약과 문헌 수록 표기를 모았습니다. ‘현재’는 오늘의 표제어이며 역사 세기와 구분합니다.

- 디들다
15세기
- 지들다
18세기
- 씨들다
19세기20세기미상
- 찌들다
20세기현재

원자료의 전체 표기 목록 7종

디드-, 디들-, 지들-, 씨들-, 찌드-, 찌들-, 찌드-

↪ 찌들다의 어원과 변화

이 말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사전의 어원·변화 설명

소제목은 읽기를 위한 편집 안내

📖 옛 표기와 등장 시기

‘찌들다’의 옛말인 ‘디들다’는 15세기부터 나타난다. 15세기의 ‘디들-’은 ‘ㄷ’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디드-’로 나타난다.

ㅅ 표기와 소리의 특징

근대국어 시기에 나타난 모음 ‘ㅣ’ 나 반모음 ‘ㅣ’ [j] 앞의 ‘ㄷ, ㅌ’이 ‘ㅅ, ㅆ’으로 바뀌는 구개음화로 인해 18세기에 ‘지들-’이 나타난다. 이후 제1음절 초성의 된소리화로 인하여 19세기에 ‘씨들-’이 나타난다.

⇒ 오늘의 형태로 이어진 과정

근대국어 후기에 ‘ㅆ’을 ‘ㅅ’으로 적게 되는 경향에 따라 20세기에 ‘씨들-’이 나타나면서 현재까지 이어진다. 19세기경으로 추정되는 문헌에서 ‘씨들-’은 ‘ㅅ’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씨드-’로 나타난다. 20세기부터는 ‘ㅅ’으로 시작하는 앞에서도 ‘씨들-’, ‘씨들-’로 나타나고 ‘ㄴ’ 등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씨드-’, ‘씨드-’로 나타난다.



문헌 속의 씨들다

전체 용례 13개

모든 뜻과 세기의 문헌 용례입니다. 원문, 현대어 풀이와 출처를 함께 확인하세요.

15세기 디드-, 디들- 용례 4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디드-, 디들-

출처 1447 석보상절 19:7ㄱ

용례 01

66 문헌 용례

입시우리 드리디 아니흐며 읊디 아니흐며 디드디 아니흐며 헐뭇디 아니흐며

원문 현대어 풀이

입술이 드리워지지 아니하며, 오그라들지 아니하며, 찌들지 아니하며, 헐지 아니하며,

출처 1447 석보상절 24:11ㄴ

용례 02

66 문헌 용례

모미 디들오 양지 덧구즐씨 여러 아돌 中에 뭇 소랑티 아니흐더니.

원문 현대어 풀이

몸이 찌들고 모습이 몹시 추하므로 여러 아들 중에 가장 사랑하지 않더니.

출처 1459 월인석보 25:75ㄱ

용례 03

66 문헌 용례

포이 양지 골 업고 더러버 가치 디들씨 姸女들이 포을 미여 無憂華樹를 것거 브려놀.

現代어 풀이

왕이 모습이 꼴 없고 더러워 피부가 찌들기에 채녀들이 왕을 미워하여 무우화수를 꺾어 버리거늘.

출처 1459 월인석보 17:47ㄱ

용례 04

66 문헌 용례

나히 八十이 디나 머리 세오 누치 디드러.

現代어 풀이

나이 80이 지나 머리가 세고 얼굴이 찌들어.

18세기 지들- 용례 1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지들-

출처 1790 인어대방 9:15ㄱ

용례 05

66 문헌 용례

이 病은 속의 지드러시매 猝然이 고치려 후다가는 大敗하기 쉽소오리.

現代어 풀이

이 병은 속에 찌들어 있으므로 갑자기 고치려 하다가는 대패하기 쉬울 것입니다.

19세기 씨들- 용례 1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씨들-

출처 1896 국한회어 곤:284

용례 06

66 문헌 용례

跣也 씨들다.

⊖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20세기 씨드-, 씨들-, 찌들- 외 1종 용례 6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씨드-, 씨들-, 찌들-, 찌드-

출처 1922 동아일보 5월 22일 4면

용례 07

66 문헌 용례

고싱에 씨든 몸이라 그런 눈치는 털썩만치도 보이지 안코

⊖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25 동아일보 12월 17일 3면

용례 08

66 문헌 용례

생활에 씨들고 피로한 사람인 것을 이 편지만 보아도 알 수 잇섯다.

⊖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31 조선일보 9월 14일 3면

용례 09

66 문헌 용례

메마르고 찌드러도 망신만은 엇지도 豐艷했섯는지요.

⊖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36년 동아일보 3월 7일 3면

용례 10

66 문헌 용례

고난에 찌드러 그는 四十 세라는 나히에 안 맞게 늙어 보일 뿐 아니라.

⊖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37 조선일보 4월 1일 석간 7면

용례 11

66 문헌 용례

때에 찌든 문_ㅅ지방 같은 것은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37 조선일보 10월 12일 조간 4면

용례 12

66 문헌 용례

흐린 세태에 찌들지 아니한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상 씨드- 용례 1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씨드-

출처 미상 마설가 692ㄱ

용례 13

66 문헌 용례

자취를 永斷하고 씨드지 안케 가다듬어.

현대어 풀이

자취를 영원히 단절하고 찌들지 않게 가다듬어.

- 세기 분류·표기·문헌명·현대어 풀이는 사전 자료 그대로 수록했습니다.
- 문헌의 연대와 세기 분류가 다른 경우에도 사전에 수록된 구분을 따릅니다.
- 용례 수는 이 사전에 수록된 예문의 수입니다.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와 구분해 읽어 주세요.

찌들다의 참고문헌

사전 편찬 참고자료

별도의 참고문헌 목록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료 출처

이 자료는 ‘단어의 역사’의 낱말 페이지에 수록된 사전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원문과 현대어 풀이, 주석과 문헌명은 원자료의 표기를 따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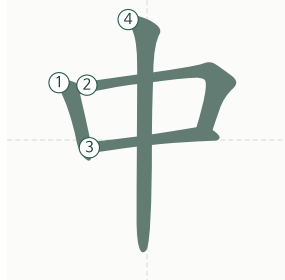
용례의 수는 이 자료에 수록된 예문의 수이며,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를 뜻하지 않습니다.

history.wordrow.kr · [찌들다의 뜻과 역사](#)

한자 한눈에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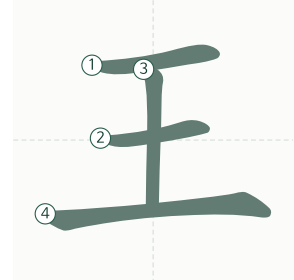
뜻·설명·문헌·함께 읽을거리에 나온 한자를 중복 없이 모았습니다. 획순은 한 글자의 숫자로만 표시합니다.

中 뜻·음 가운데 중
총 4획 · 부수 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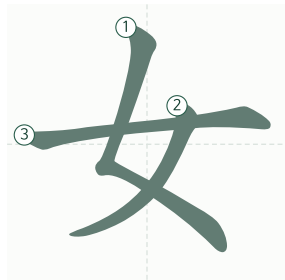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中/

王 뜻·음 임금 왕
총 4획 · 부수 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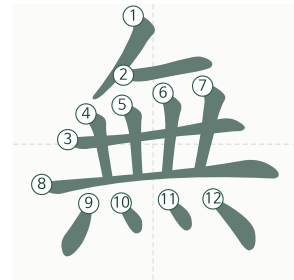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王/

女 뜻·음 계집 녀
총 3획 · 부수 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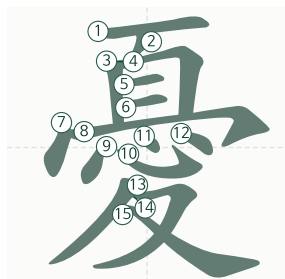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女/

無 뜻·음 없을 무
총 12획 · 부수 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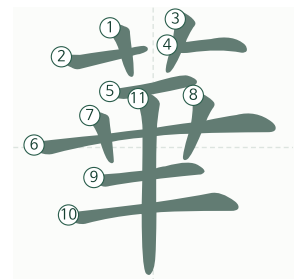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無/

憂 뜻·음 근심 우
총 15획 · 부수 心



hanja.wordrow.kr/한자/憂/

華 뜻·음 빛날 화
총 11획 · 부수 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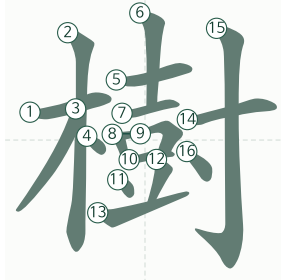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華/

한자 한눈에 보기

뜻·설명·문헌·함께 읽을거리에 나온 한자를 중복 없이 모았습니다. 획순은 한 글자의 숫자로만 표시합니다.

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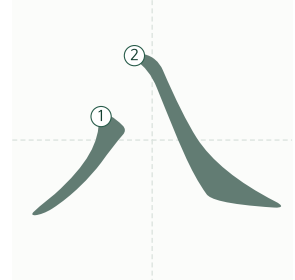
뜻·음 나무 수
총 16획 · 부수 木



hanja.wordrow.kr/한자/樹/

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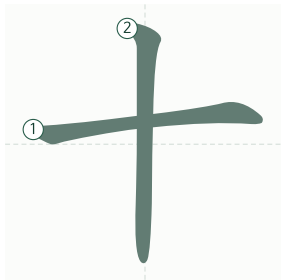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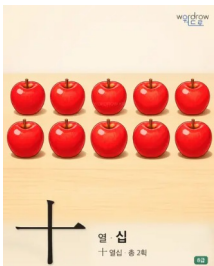
뜻·음 여덟 팔
총 2획 · 부수 八



hanja.wordrow.kr/한자/八/

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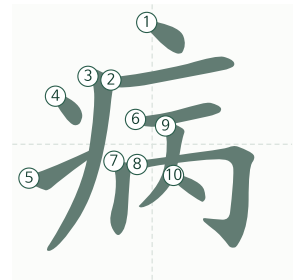
뜻·음 열 십
총 2획 · 부수 十



hanja.wordrow.kr/한자/十/

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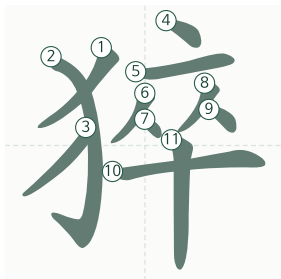
뜻·음 병병
총 10획 · 부수 疒



hanja.wordrow.kr/한자/病/

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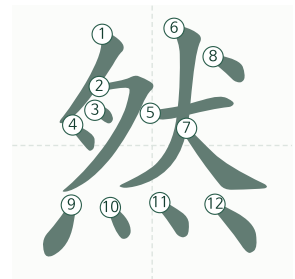
뜻·음 갑자기 졸
총 11획 · 부수 犬



hanja.wordrow.kr/한자/猝/

然

뜻·음 그럴 연
총 12획 · 부수 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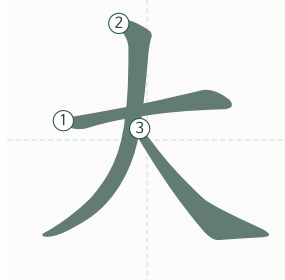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然/

한자 한눈에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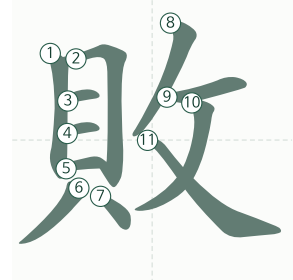
뜻·설명·문헌·함께 읽을거리에 나온 한자를 중복 없이 모았습니다. 획순은 한 글자의 숫자로만 표시합니다.

大 뜻·음 큰대
총 3획 · 부수 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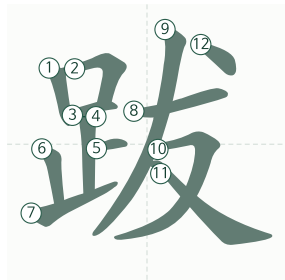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大/

敗 뜻·음 패할패
총 11획 · 부수 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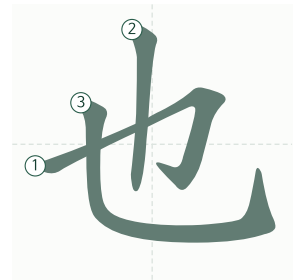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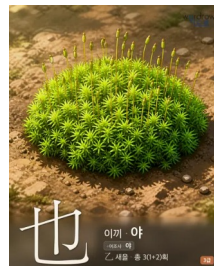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敗/

跋 뜻·음 밟을 발
총 12획 · 부수 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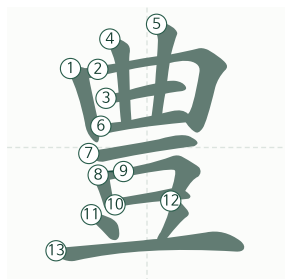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跋/

也 뜻·음 이끼·어조사야
총 3획 · 부수 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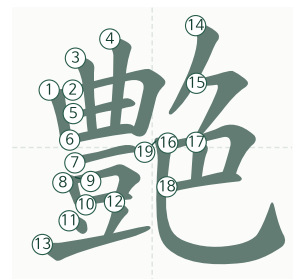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也/

豊 뜻·음 풍년 풍
총 13획 · 부수 豆



hanja.wordrow.kr/한자/豊/

艷 뜻·음 고울 염
총 19획 · 부수 色



hanja.wordrow.kr/한자/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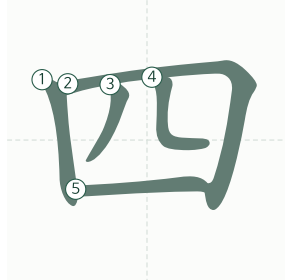
한자 한눈에 보기

뜻·설명·문헌·함께 읽을거리에 나온 한자를 중복 없이 모았습니다. 획순은 한 글자의 숫자로만 표시합니다.

四

뜻·음 녀사

총 5획 · 부수 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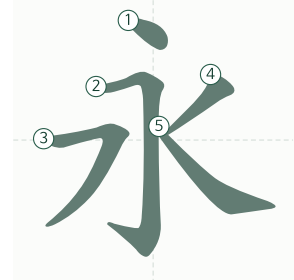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四/

永

뜻·음 길영

총 5획 · 부수 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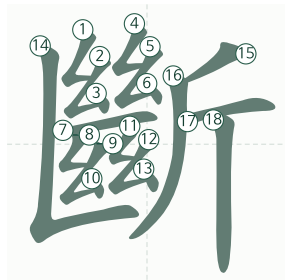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永/

斷

뜻·음 끊을 단

총 18획 · 부수 斤



hanja.wordrow.kr/한자/斷/